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Feature

하나투어
하노이/하롱베이/엔터산 3박 5일
상품 집중 분석

글 · 사진/이창호 기자

베트남은 최근 동남아시아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민지 시대와 전쟁 등 복잡다단한 역사를 거쳤지만 아오자이와 씨클로,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앞세워 수많은 여행자의 발길을 끌어 모으고 있다. 특히 국내 TV 항공사의 광고와 영화 '인도차이나'에 등장해 우리에게 제법 친숙한 베트남 북부의 하롱베이는 베트남에서 한국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힌다. '인도차이나의 꽃'으로 불리는 천하 절경 하롱베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하나의 '하노이/하롱베이+엔터산 3박 5일' 상품에 동행, 이국적인 문화와 아름다운 풍광, 패키지여행 상품의 신뢰성 등을 집중 분석했다.

베트남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베트남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물론 전후 세대일지라도 안정효의 동명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하얀 전쟁'을 비롯해 '7월 4일생', '디어 헌터', '플래툰', '굿모닝 베트남' 등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베트남 전쟁'을 떠올린다.

또한 '그린 파파야 향기', '씨클로'를 본 사람이라면 '아오자이'와 '씨클로'의 잔상을 빼놓을 수 없다. 대한항공의 하롱베이 CF, 쌀국수, 메콩 강, 라이따이한 등도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이다.

특히 우리와는 직접적인 연관도 많아 전혀 생소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살짝 과거로 떠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가격 대비 최고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베트남 하면 여전히 '아시아의 파리' 하노이와 '바다 위의 구이린(桂林)'이라고 불리는 하롱베이, 원래 명칭이 '사이공'이었던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만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다수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부의 호이안과 후에, 천혜의 항구도시 다낭과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나트랑 등 중부 도시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어디로 떠날까.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여행객을 모집한 뒤 갖가지 옵션 투어에 바가지 쇼핑으로 수지를 맞추는 패키지 상품이 여전히 있지만, 최근에는 패키지 문화도 많이 개선돼서 처음 방문이거나 여행 준비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겐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여행이 제격이다.

베트남 관련 패키지 상품은 크게 ▲베트남 북부 하노이와 하롱베이를 중심으로 갖바 국립공원, 엔터산, 하떠이를 추가하는 상품 ▲베트남 남부 호찌민 완전 일주를 중심으로 봉타우를 추가하는 상품 ▲베트남 중부의 후에, 다낭, 호이안 상품

▲베트남 남북부 일주 상품 ▲베트남 북부 하롱베이를 중심으로 앙코르 유적지, 중국 쿤밍, 싱가포르, 태국 파타야, 라오스의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 홍콩을 방문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베트남 패키지 상품 중 인천에서 하노이로 이동,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인 하롱베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베트남 전통 해선식과 수상인형극 등을 즐기고 관람할 수 있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와 하롱베이 패키지 상품이 마음에 끌렸다. 그 다음으로 깃발만 쫓아다니는 '걸잡기 식 여행'이 아니라 관광과 휴양이 적당히 짜여 있어 일상에서 벗어나 정신과 육체에 휴식을 선물할 수 있는 상품이 선택의 잣대였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검토한 뒤, 베트남을 알차게 여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1등 여행사'를 표방하는 하나투어의 '실속 하노이/하롱베이+엔터산 3박 5일' 상품을 예약했고, 지난 3월 4일 인천공항에서 4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떠났다.





여행 전 하나투어가 제공한 옵션 투어와 쇼핑 정보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추천 선택 관광 - 베트남

씨클로 \$20 1시간 베트남의 교통수단인 씨클로(앞은 인력거, 뒤는 자전거)를 1시간 정도 탑승하면서 시내를 구경하는 일정

전신 마사지 \$40 2시간 발 마사지만으로 부족한 분을 위한 전신 마사지. 전신의 피로를 풀고 하루를 마감하며, 새로운 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듭니다.(*전통마사지 \$30 1시간 30분 => 발마사지 1시간+전신 30분 코스입니다.)

발 마사지 \$20 1시간 하루의 피로가 확 풀리는 베트남 전통 발 마사지

야간 시티투어 \$30 1시간 아름다운 호숫가 카페에서의 낭만적인 추억과 호찌민

묘소를 관람할 수 있는 추억의 야간 시내 관광코스(+추가 20\$ 시 하노이 최고의 나이트클럽에서 쇼를 관람하며 하노이의 야경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관광코스입니다.)

어울락 분수쇼 \$20 40분 베트남 하롱베이 어울락리조트에서 즐길 수 있는 분수쇼! 동시 수용 인원 3000명이 넘는 동양 최대의 레이저 분수쇼장에서 분수쇼 관람. 싱가포르 자본이 투자한 어울락리조트의 아름다운 하롱비치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꼭 한 번은 둘러봐야 할 하롱의 명소 (관람 인원이 부족할 경우 쇼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핑 정보

드라코 또는 아오자이 보석(루비, 사파이어 등), 상황버섯, 다람쥐 커피, 차, 목

실속 하노이/하롱베이+엔터산 3박 5일 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제1일 3/4 화	안천 하노이	OZ 733	17:10 19:40 22:30	안천 국제공항 3층 출국장 만남의 장소 동측(A와 B 사이) 5번 테이블 하나투어 안내관 앞 미팅 안천 국제공항 출발 노바이 국제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Sport Hanoi Hotel	석식가내식
제2일 3/5 수	하노이 하롱베이	전용차량	오전 오후	호찌민박물관, 호찌민의 집, 문묘, 한가동 사원, 바딘광장 등 하노이 시내 관광 중식 후 하롱베이로 이동(4시간 소요, 이동 중 휴게소 이용) 호텔 휴식 Hotel Sunlight Hotel	조식호텔식 중식한정식 석식현지식
제3일 3/6 목	하롱베이	유람선 전용차량	전일	하롱베이 유람선을 이용하여 하롱만의 3000여 개의 그림 같은 주변 섬 관광 선상 중식베트남 전통 해산식(대금바리)(1인당 30달러 추가 구입 가능) 육지로 귀환하여 수상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 및 놀거리가 마련된 로열파크 관람 Hotel Sunlight Hotel	조식호텔식 중식선상 석식한정식
제4일 3/7 금	엔터 하노이	전용차량	오전 오후	조식 후 하롱베이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엔터로 이동 케이블카를 타고 엔터 지역의 명산과 사원을 관람 호안키엠 호수 등 하노이 시내 관광 및 베트남 여행의 색다른 즐거움인 쇼핑 관광 하노이 노바이 국제공항으로 이동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OZ 734	23:30	하노이 노바이 국제공항 출발	
제5일 3/8 토	인천	OZ 734	05:50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식·가내식
상품가격 성인(만 12세 이상) : 699,000원, 아동(만 12세 미만) : 559,200원, 유아(만 2세 미만) : 139,800원 글 차지 : 100,000원 상기 아동 요금은 성인 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할 때의 요금입니다.					
예약인원 예약 14명 / 좌석 14명 (최소 출발 인원 8명, 40~50대 : 6명 / 60대 이상 : 8명 인솔자 동반하지 않음)					
상품특전 베트남 전통모자 증정(1인 1모), 샌레스토랑 특식, 베트남의 명물 씨글로 탑승, 하롱베이의 명물 로 열파크 관람, 수상인형극 관람, 베트남 전통 해산식 제공, 하롱베이 유람선을 이용한 하롱베이 관광, 호찌민 박물관, 호찌민의 집 등 하노이의 시내 관광, 가이드·운전기사 NO-TIP 행사로 여행 경비 절감 효과 (\$30~50)					
포함사항 왕복항공권, 전 일정 숙박비, 차량비, 여행지 입장료, 1억 원 여행자보험, 인천공항세(17,000원), 관 광진흥개발기금(10,000원), 전쟁보험료, 현지공항세(14\$), 유틸리티료					
불포함 사항 현지식 식당에서의 생수비, 현지인 가이드(하롱베이 배, 기사 팁 등 공동경비)약 \$10)					

각류, 의류(아오자이), 지갑

라텍스숍 라텍스 탕롱스타 노니(노니 가루, 노니 차, 노니 비누, 노니 주스), 토산품 등

침향 침향분말, 수지, 휴대전화고리, 목걸이, 향(스틱, 삼각형), 침향오일

* 쇼핑하신 물품은 한 달 이내에 반품하셔야 환불 가능합니다.(영수증 필수 요

망)

* 인도차이나 지역 잡화점에 전시되어 있는 명품들은 OEM 제품이 아니라 이미테이션(IMITATION) 제품이오니, 쇼핑 시 참고하시어 구매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01-02 인천→하노이→하롱베이

일정

3월 4일 오후 7시 40분 개별적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4시간 50분 만에 하노이 노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현지 시간 오후 10시 30분)해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았다. 출국장을 나서니 하나투어 미팅판을 든 하나투어 가이드를 비롯해 여러 여행사들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실속 하노이/하롱베이+엔터스 3박 5일’ 패키지 여행 인원은 14명이었으나 현지에서 2팀(모객이 되지 않은 상품)이 합류해 모두 18명이 되었다. 공항 도착 1시간 후인 오후 11시 30분에 대형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 투숙했다.

3월 5일 아침식사 후 오전 9시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난 뒤 곧바로 하노이 시내 관광을 시작했고, 중식 후 도자기 공장 견학과 쇼핑센터를 거쳐 오후 6시 하롱베이의 선라이트 호텔에 도착, 투숙했다.

Itinerary 하노이_베트남 영웅 호찌민

하노이는 1009년 처음 리 왕조의 수도가 된 이후 오늘까지 이어진 천년 고도다.

고도에 걸맞게 하노이 도심 풍경은 여행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유서 깊은 사원과 옛 시가를 형성했던 오래된 건축물 사이에 다소 의외의 모습을 한 프랑스식 건물도 볼 수 있

어 운치를 더해준다. 또 하노이 일대는 호수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수령을 가늠하기 힘든 가로수가 차분한 매력을 발산한다.

호텔을 출발한 지 15분 만에 공자를 모시려고 1070년에 지은 문묘에 도착했다. 문묘는 리 왕조 때 국교가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면서 당시 유학자들이 모여 공부를 했던 베트남 최초의 대학으로 중국 전통양식의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구중궁궐 같은 경내에는 녹음이 무성한 정원과 연못이 자리해 있어 산책 코스로도 제격이다.

19세기 원조(沅朝) 시대에 만든 규문각에 들어서면 거북 머리 좌대의 비석이 한데 모여 있는 게 눈에 띈다. 거북 등에 세운 비석에는 15세기 후반부터 300년 동안 열렸던 과거시험 합격자의 이름이 한자로 새겨져 있다. 현재 베트남은 알파벳에 자신들의 성조를 붙인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다.

50여 분 문묘를 돌아본 뒤 베트남 국회 맞은편 바딘광장(호찌민 광장)에 자리 잡은 호찌민 (1890~1969) 묘로 행했다. 1945년 호찌민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바로 그 자리다.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난 1975년에 조성한 묘로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줄을 선다. 묘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에 적힌 ‘위대한 호찌민 주석 우리 마음에서 영원히 살아 있다’라는 글귀에서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어렵듯이 알 수 있었다. 검은 대리석으로 쌓은 단 위에 붉은색 대리석 기둥을 세운 묘 내에서는 떠들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진 촬영도 안 된다. 물론 민소매, 짧은 치마, 반바지 등의 복장도 금지된다. 베트남과 국부 호찌민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호찌민의 유해가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있는 호찌민 묘의 맞은편 광장 끝자락에서 가이드로부터 호찌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난 뒤 광장 뒤편으로 이동, 주석부와 호찌민이 기거했던 집, 호찌민 박물관 등 호찌민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호찌민은 프랑스 총독 관저였던 주석부에 잠시 머물렀다가 큰 집이 필요없다며 프랑스 전기수리공이 살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1층에는 면담실과 회의실이 갖춰져 있고 2층에는 침실이 꾸며져 있다. 호찌민은 베트남의 남북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국민적 영웅으로 베트남과 결혼했다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생활 또한 검소했다. 기거했던 집을 돌아보면 현재 베트남에서 발행되는 모든 지폐에 호찌민 얼굴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국민에게 열렬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숙연한 마음마저 든다.

호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1990년 건립한 호찌민박물관에서는 호찌민 생가의 모형과 자필 편지, 그림, 옥종일기 등 호찌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비록 차창을 통해 잎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호안키엠 호수, 길가에 옹기종기 모여 쌀국수 ‘포(pho)’를 먹는 현지인, 오토바이들로 가득 찬 도심의 풍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베트남에 왔구나 싶은 게 마냥 즐겁고 재미있었다. 중식 후 하노이에서 180여 km 떨어진, 베트남 여행의 백미로 꼽히는 하롱베이로 떠났다.

Meal 아침은 스포츠 하노이 호텔의 뷔페식, 점심은 하노이 시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서울식당의 한정식 뷔페, 저녁은 하롱베이 한국식당에서의 샐러드였다. 아침과 점심의 뷔페식은 대체로 별로라는 평가였으나, 저녁 식사는 만족스러웠다. 생삼겹살에 싱싱한 야채가 푸짐하게 나왔고, 특히 고기 맛이 쫄깃하고 고소했다. 밀반찬 음식이 깔끔했고, 음식점도 깨끗했다.

Shopping 일정표에 나와 있는 휴게소 이용은 베트남 특산물이라는 노니 관련 제품 쇼핑 일정이었고, 도자기 공장 등 2곳을 방문했다. 휴게소에 도착해 노니 체험실이라는 방에 들어가자 한국인 직원이 20여 분간 노니(Noni)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체에 이로운 160여 종의 성분이 들어 있는 천연 제품으로, 베트남에서는 국민 방문 시 제일 먼저 주는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체험실 옆 매장에는 노니 파우더, 비누 등 노니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키퍼링 가방, 다람쥐 커피, 깨, 물소뿔 주걱과 효자손 등이 진열돼 있었다. 첫 번째 쇼핑 장소라서 그런지 노니 제품보다는 잡화의 호응도가 높았다.

도자기 공장 방문은 도자기 가마와 도자기 제조 과정을 볼 수는 있지만 목각인형이나 접시 등 기념품 매장 방문에 더 가깝다. 매장이 어둡고 침침해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쇼핑에 관심이 없었다. 쇼핑에 소비한 시간은 휴게소 40분, 도자기 공장 20분 등 총 1시간.

Option Tour 베트남 전통 마사지와 발 마사지

베트남도 마사지센터는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들르는 곳으로 전신 마사지보다는 발 마사지로 유명하다. 가이드는 하노이에서 하롱베이로 이동 중 수차례 발 마사지는 베트남이 원조라며 지금까지 모든 고객들이 가장 만족하는 선택 관광이라고 강조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일행 모두는 음식점 인근의 마사지센터에서 1시간 30분간 발 마사지를 포함한 전신 마사지를 받았다. 가이드 말 때문인지 아니면 여독 때문인지 모든 사람들이 마사지를 받았다. 족욕기에 발을 잠시 담근 뒤 발 마사지를 받았는데 뭉쳐 있던 근육이 싹 풀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발 마사지를 끝낸 도우미는 돌아눕도록 하더니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밟아주었는데 태국의 마사지보다는 개운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독을 풀기에는 충분했다. 마사지가 끝난 뒤 가이드가 알려준 대로 팁을 2달러 줬다.

Hotel 스포트 하노이 호텔(Sport Hanoi Hotel)

하노이 신시가지 내에 자리잡은 호텔로 주변에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어 이른 아침부터 오토바이의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별이 3개로 적혀 있는데, 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하다. 한글로 된 온수 사용법이 벽에 붙어 있지만 10여 분 이상 연속해서 온수를 사용하면 찬물이 나온다. 따라서 찬물이 나오면 10~20분 정도 기다려야 다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헤어드라이어와 커피 포트가 갖춰져 있고, 커피 믹스 2개, 생수 2병이 제공된다. TV는 CNN, ESPN 등 외국 채널도 나왔고, KBS월드와 아리랑TV도 시청할 수 있었다.

이날 하나투어를 비롯해 노랑풍선, 모두투어의 고객들이 투숙했다.



03 하롱베이

일정

이번 패키지 상품의 백미로 꼽히는 하롱베이는 베트남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놓칠 수 없는 명소로, 모 항공사 CF, 영화 ‘인도차이나’, ‘굿모닝 베트남’에 등장해 우리에게 제법 친숙한 곳이다. 한 나절 유람선을 타고 하롱베이의 여러 섬을 둘러보고, 선상 해물식을 즐기는 등 하롱베이의 매력에 퐁당 빠지는 날이었다.

Itinerary 하롱베이_천년 바람이 빚어낸 바다 위 무릉도원

호텔에서 버스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바이차이 선착장은 수많은 목선과 관광객들로 혼잡했다.

일행 18명이 로마시대의 범선을 연상시키는 전용 선박에 승선하자, 선박은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 위에 펼쳐진 수천 개 기암괴석이 선사하는 하롱베이 만의 비경 속으로 느릿느릿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선착장을 벗어나자 바닷물에 깎이고 비바람에 녹아 생긴 3000여 개의 석회암 섬과 기암이 동심 따 다니고 희뿌연 안개 사이로 흐릿하게 수목화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너른 바다 위에 웅장하게 펼쳐진 기암괴석 풍모 덕에 199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바다에 세워놓은 것 같은 하롱베이의 섬들은 그 모양도 각양각색이다. 날카롭게 깎아지른 듯한 바위 섬, 돛단배나 연꽃처럼 생긴 섬, 사람의 얼굴이나 코끼리·닭·낙타 등 동물을 닮은 섬, 환상적인 동굴을 품고 있는 섬 등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지닌 섬과 기암이 에메랄드 빛 바다 위에 흩어져 있다. 이

검도·구기비법·농법·조식기법·결간양법 등 세척기법. ‘검검세에 못개 이름 풀어진 기법인 1000여 개를 헤아린다고 한다.

천혜의 비경은 기후나 태양 빛의 변화에 따라 모습과 빛깔을 미묘하게 바꾼다. 안개가 걷히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햇별이 내리쬐다. 다채롭게 변하는 날씨에 따라 섬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한다. 선명했다가 흐렸다가 안개에 가려졌다가 다시 햇빛에 다이아몬드 빛을 반사한다. 사람들은 갑판에 올라와 그림 같은 풍경에 넋을 잃었다.

침침산중의 골짜기 골짜기마다 풍경이 바뀌듯 섬과 섬으로 겹겹이 포개진 바다는 양파처럼 껍질을 벗겨내도 비슷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여행자 앞에 나타났다.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낸 거대한 종유동굴과 기암들이 사방을 둘러싼 ‘하룻베이의 호수’인 호수동굴이 하룻베이의 또 다른 볼거리다.

에메랄드 빛 바다를 가르기를 1시간 20분, ‘하늘의 문’이라는 천궁(天宮) 동굴을 품고 있는 섬에 도착했다. 선착장에 내려 100개의 돌계단을 올라가 천궁동굴에 들어서자 억겁의 세월 동안 만들어진 기상천외한 모습이 펼쳐졌다. 동굴의 천장에서 떨어지는 지하수가 고드름 모양으로 자란 종유석과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동굴 바닥에 닿으면서 탐 모양으로 쌓인 석순, 그리고 종유석과 석순이 맞닿아 생긴 석주 등이 색다른 구경거리다. 프랑스인들은 이곳을 ‘경이로운 동굴’이라 불렀다고 한다. 인공조명 기술 탓인지 삼척의 환선굴에서 느꼈던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다.

자연이 빚어낸 걸작을 뒤로하고 유람선은 다시 길을 나섰다. 열대과일이나 먹을거리들을 잔뜩 실은 노점상이 유람선에 자신의 ‘삼판’을 붙여놓고 흥정을 한다.

관광객들은 한 번 정도 열대과일을 사주거나 어린 소녀의 해맑은 미소에 이끌려 1달러를 건네기도 한다. 또한 선상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금바리, 갑오징어, 자연산 바닷게, 문어 등을 파는 해상 수산시장도 색다른 볼거리다.

바람은 상쾌하게 머리카락을 가르고 유람선은 끝도 없는 섬을 가른다. 원근과 명암을 달리하며 산맥처럼 끝없이 밀려드는 섬들은 과연 여기가 바다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바다와 돌과 바람이 빚어낸 자연의 신비가 와락 품 안에 파고든다. ‘신선이 있다면 이런 곳에 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호수동굴 앞에 도착해 유람선에서 내려 모터보트를 타고 호수동굴의 입구로 방향을 잡았다. 호수동굴은 이름 그대로 좁은 입구를 지나자 지금까지의 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바다는 마치 호수와의 같았고, 억겁의 시간이 빚어낸 석회동굴 속에 갇혀 있는 듯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이곳에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면 답답함보다는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호수에서 느끼는 고졸한 느낌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사진작가라 해도 ‘하룻베이’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하룻베이의 빼어난 절경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도 감탄하여 차마 폭격하지 못했다고 하는 하룻베이의 하룻(下龍)은 ‘하늘에서 용이 내려온 곳’이란 의미다. 오래전 이곳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입에서 보석과 구슬을 내뿜자, 갖가지 모양의 기암(奇岩)이 되어 침략자를 물리쳤다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호수동굴에서 돌아오자 유람선 주방장이 수산시장에서 구입한 다금바리와 싱싱한 해산물 등으로 짜인 해선식을 차려 내놓았다. 다금바리회를 비롯해 새우, 게 등 유람선에서 맛보는 싱싱한 선상만찬은 그야말로 천하일품이다. 무엇보다 최고급 어종이어서 국내에선 맛보기 힘든 다금바리회를 값싸게 먹을 수 있어 더욱 즐겁다. 제주산 다금바리회보다는 고소함과 쫄깃쫄깃한 맛이 덜하지만 ‘바다 위 무릉도원’ 풍경 속에서 즐기는 음식은 그야말로 신선놀음이 부럽지 않다. 선상의 파티는 2시간 이상 이어졌고, 유람선은 떠났던 그 자리로 되돌아왔다. 비록 한나절 유람선 투어였지만 비경 속에 젖어들며 세상만사 온갖 시름을 잊은 유쾌한 시간이었다. 아! 하룻베이.

Meal 호텔 조식 뷔페는 전날 스포트 하노이 호텔과 같이 쌀국수 이외에는 먹을 만한 것이 거의 없었고, 석식은 삼겹살이 나왔는데 전날보다 형편없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았다. 삼겹살 맛도 떨어질 뿐 아니라 밀반찬도 전날보다 부실했다. 중식은 선상의 해선식(웍션)으로 먹는 즐거움을 제공해주었다.

Shopping 현재 쇼핑이 포함되지 않은 패키지 상품은 거의 없다. 다만 쇼핑 횟수가 많으면 쇼핑 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움직이게 되므로 정작 관광을 즐겨야 할 때 힘이 다 빠져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하게 되고, 쇼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이날은 히노키(일본에서 육조 소재로 쓰이는 편백나무) 매장 1곳만 방문했고, 쇼핑 시간도 20분에 불과했다.



04-05 하롱베이→엔터→하노이→인천공항

일정

한국으로 돌아가는 베트남 여행 마지막 날. 오전에는 엔터 지역의 명산과 사원 관광. 오후에는 하노이에서 씨클로 타기와 수상인형극 관람, 쇼핑을 했고, 저녁식사 후 하노이 노바이 국제공항으로 이동, 인천 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Itinerary 엔터 산과 씨클로 타기_과거로 떠나온 듯한 시간 여행

오전 9시 호텔을 출발, 하롱베이에서 전용 차량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엔터로 이동했다. 엔터산은 베트남 북부의 새로운 관광지로 기존의 상품 코스였던 하롱베이의 깃바 섬, 하떠이 일정을 대체시키면서 새롭게 패키지에 들어간 코스다.

가이드는 이동 중에 베트남의 민족 구성과 결혼 풍습 등을 재미있게 설명해 이동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베트남에는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하는 베트남족을 비롯해 타이·므엥·파이족 등 53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베트남의 토속신앙은 도교와 유교 및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베트남의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지에서는 자신들이 흠모하는 신을 모셔놓고 향을 피우며 절을 하고 날마다 꽃을 갈아 꽃병에 꽂는다고 한다. 가이드는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젓가락 사용은 물론 새 집을 짓는다면 길흉사가 있을 때 고사를 지내고 굿을 하는 등의 풍속이 우리와 거의 닮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은 체구에 눈빛에선 형형한 안광이 빛나는 베트남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해 이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문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베트남 북부의 대표적인 불교 성지인 엔터 자이완 사원에 도착했다. 주차장에서 내려 프랑스에서 설치한 케이블카에 탑승했다. 5분 후 케이블카에서 내려 오솔길과 경사진 계단을 따라 10분 정도 오르니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법당과 베트남 고승들의 사리를 모신 탑에 향을 피우며 복을 기원하고 있었다. 엔터산(1068m) 정상 주위에는 사리를 모신 탑들이 무려 500여 개나 있고, 사원 또한 모두 7곳에 달한다. 패키지 상품 일정 때문에 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 웅장한 사원은 볼 수 없었지만, 중턱에서 바라본 엔터산의 전경은 가슴이 탁 트일 만큼 시원하다.

엔터에서 현지식으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하노이로 출발했다. 베트남의 전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등 하노이까지의 길이 심심하지 않았다. 오후 3시 하노이 시내에 도착한 일행 18명은 인력거와 자전거를 결합시킨 씨클로를 타고 30여 분간 하노이 구시가지를 둘러보았다.

36개의 작은 거리가 있어 ‘36 거리’라고 불리는 하노이 구시가는 사람들과 오토바이 그리고 씨클로로 북적거렸다. 오토바이들로 가득 찬 도심의 풍경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질서라는 개념 없이 마구잡이로 들이치는 오토바이의 물결은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 뒤에서 운전 기사가 페달을 연신 밟았고 카페와 은행, 시장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우리의 1960~70년대의 시간 속으로 빠지다 보면 어느새 거리 풍경이 진솔하고 정겹게 다가온다.

서울에 처음 올라온 촌사람처럼 시내를 돌아보다 보면 관광객을 태운 씨클로의 모습을 자주 마주치게 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어디론가 향하는 현지인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오토바이 덕분에 시내는 온통 굉음과 클랙스 소음으로 진동하고, 그리고 재앙에 가까운 매연으로 자욱해 매캐함이 떠나지 않는다.

하얀 아오자이를 입은 여성을 마주치자 나도 모르게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게 된다. 베트남에서 아오자이는 미의 상징이며, 베트남 문화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통 의상으로 흔히 ‘보여 주지 않으면서 다 보여준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새롭게 변모하는 베트남의 모습을 반영하듯 아오자이를 입은 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저녁에는 베트남의 전통 인형극인 수상인형극을 관람했다. 옛날에는 수확을 끝낸 후 연못과 논둑이 무대였지만, 요즘은 대형 수조와 수상가옥처럼 물에 세워진 화려한 건축물을 배경으로 섬세하게 제작된 인형들이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농민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수상인형극은 보통 한 시간 남짓 이어지는데, 교통 정체로 인해 공연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해 아쉬움을 남겼다. 비록 관람 시간은 짧았지만 물 위의 인형들은 신기할 정도로 그 움직임이 자연스러웠고, 베트남어 대사를 알아듣지 못했어도 인형의 움직임이 재미있었다.

베트남은 최근 들어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타임머신을 타고 살짝 과거로 떠났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다.

Meal 현지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이지만 한식에 오래 길들여진 사람이 맛이 생소한 현지식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일행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이어서 그런지 베트남 전통음식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가이드와 협의해 원래 3번의 현지식 중 한 번만 현지식으로 진행됐다.

선라이트 호텔 조식 뷔페는 전날과 똑같았고, 중식은 엔터 지역에서 베트남 현지식, 석식은 하노이 서울식당에서 삼겹살과 된장이 나왔다.

Shopping 일정표에 ‘하노이 시내 관광 및 베트남 여행의 색다른 즐거움인 쇼핑 관광’이라고 적혀 있듯이, 이날 노니와 라텍스, 잡화 매장 등 3곳을 둘러보았다. 저녁 식사를 한 서울식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키플링 및 기념품 매장을 합하면 총 4곳이다. 노니 매장은 하노이에서 하롱베이로 갈 때 들른 휴게소였고, 잡화 매장은 각종 의류와 가방, 보석과 노니, 커피와 기념품 등을 파는 곳이었다. 입구에서 ‘상품 구입 확인서’를 나눠주었고,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선전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패키지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라텍스 매장에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한국인 직원이 라텍스에 대한 예찬과 함께 태국보다는 베트남의 인건비가 저렴해 라텍스도 훨씬 싸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는 “6시 30분에 시작하는 수상인형극을 예약했기 때문에 사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6시 10분까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라텍스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침대 위에 편하게 누워 있어도 된다”고 말했다. 라텍스 매장에 도착한 시간이 5시 15분이니까 무려 55분 동안 라텍스 매장에 있어야 했다. 다른 매장과 마찬가지로 현지인은 물론 일반 여행객 손님도 없고, 패키지여행객들만 있었다. 일행 중 1명이 라텍스를 구입했고, 지루해진 관광객이 ‘이제 나가자’며 가볍게 항의하기도 했다.

6시 10분 라텍스 매장에서 곧바로 수상인형극장으로 이동했지만 교통 정체로 인해 공연 시작 시간보다 30분 늦은 7시에 공연장에 도착했다. 노련한 가이드가 퇴근 시간 때 라텍스 매장에서 공연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문제는 쇼핑 수수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노이/하롱베이-엔터산 3박 5일 Repere's Opinion

여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지 가이드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지 가이드다. 가이드에 따라 여행의 감동이 달라지고, 여행의 깊이도 달라진다. 따라서 현지 가이드는 여행사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상품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여행의 가이드는 관광지에서뿐만 아니라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에도 베트남 역사 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주는 전문성은 있었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주는 세심함은 부족했다. 한마디로 현란한 말솜씨로 여행객들을 다루는 노련한 가이드였다.



전자 항공권을 분실하다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날 여권을 수거했던 가이드는 마지막 날 버스 안에서 전자 항공권을 수거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여행객 2명이 전자 항공권을 찾지 못했다. 가이드에게 여권에 끼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가이드로부터 여권에는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버스가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짐칸에서 꺼낸 가방을 확인했지만 그곳에도 티켓은 없었다. 당연히 저녁도 거른 채 다시 가방을 뒤졌다. 허탈한 심정으로 가이드에게 다시 한번 여권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고, 티켓은 여권에 끼어 있었다. 이들 관광객은 “모처럼의 여행에서 기분을 완전히 망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란한 말솜씨로 통제 최근에 일어난 여행객 오토바이 사고 등을 거론하며 호텔에서 벗어나는 이 탈 행동은 위험하다는 멘트를 수시로 날렸다. 또한 가이드가 추천하는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들은 반품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대부분 중국산 저질 제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하롱베이 유람선에서 파는 진주와 목각인형 등 기념품이 시중보다 2~3배 비싼 가격임에도 아무 언급이 없었다. 특히 여행 3일째 하롱베이 유람선 여행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시간이 오후 4시 30분이었는데 오후 6시 마사지 옵션만 진행할 뿐 호텔에서 2, 3분 거리에 위치한 재래시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몇몇 사람은 재래시장을 둘러보았지만 호텔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세심한 배려 부족 일정표에 하롱베이 선라이트호텔에서 2박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고령의 일부 여행객은 하루 숙박 후 여행 가방을 꾸리는 등 아침부터 허둥지둥했다. 아침 식사도 혼선을 빚었다. 전날 가이드가 제공한 방 배정표에 아침 식당 장소가 8층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로 흐릿했다. 이 때문은 몇몇 사람들은 1층까지 내려간 뒤 8층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해외여행이 처음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관광 자체보다 호텔을 이용하는 일임에도 노련한(?) 가이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왜 로열파크에 갔을까?

일정표에 “하롱베이 바이차이 비치로드에 위치한 대규모 공원 단지로 다양한 공연 및 놀거리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다. 저녁에는 수상인형극을 비롯하여 전통 닭싸움, 민속춤 공연 등이 개최된다. 또한 야간에는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각종 기념품 및 특산물을 판매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었고, 상품 특전이라는 항목에도 ‘하롱베이의 명물 로열파크 관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롱베이 투어 이후 로열파크에 도착해 카페와 상점 건물이 모여 있는 거리와 기념품을 파는 재래시장만 ‘걸할기 식’으로 둘러보았고, 소요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했다. 가이드는 “이곳의 상품은 질이 별로 좋지 않으니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유람선에서 3달러에 구입한 똑같은 목각인형이 이곳에서는 1달러였다. 얼핏 보기에도 여행을 기념할 수 있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5~6분 만에 휙 돌아보고 히노키 매장을 거쳐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25분이었다. 가이드는 호텔 바로 옆 한정식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면서 7시 30분까지 로비로 모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마사지를 받을 사람은 30달러에서 20달러로 할인해준다고 6시까지 로비에서 만나자고 공고했다. 마사지를 받지 않을 사람은 그야말로 3시간의 자유 시간이 주어진 셈이지만 호텔 주변에는 볼거리가 거의 없어 호텔에서 폭 쉴 수밖에 없다.

몇몇 사람은 “로열파크가 왜 하롱베이의 명물인지, 왜 갔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품었다. 하지만 다음날 즐거운 여행을 위해 가이드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관광, 쇼핑 시간 비중		
1일	관광 쇼핑	- -
2일	관광 쇼핑	2시간 25분 1시간
3일	관광 쇼핑	6시간 35분 25분
4일	관광 쇼핑	2시간 30분 1시간 50분
합계	관광 쇼핑	11시간 30분 3시간 15분

*버스이동 시간 제외

옵션, 선택인가 필수인가

패키지 상품의 경우, 쇼핑 · 옵션 수수료로 현지 여행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옵션과 쇼핑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격이 낮은 패키지여행 상품으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 쇼핑이나 옵션 투어 등을 끼워 넣고 때로는 강요하는 등 현지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여행 업계의 구태 때문에 ‘1등 여행사’ 하나투어의 상품을 선택했다.

이번 하나투어 상품은 ‘노 팁’이지만 ‘노 옵션’은 아니다. 일정표에는 전통 마사지(발 마사지+전신) 1시간 30분 30달러, 하롱베이 어울락리조트의 분수쇼 20달러, 야간 시티투어 30달러, 씨클로 1시간 20달러 그리고 다금바리 30달러가 선택 관광으로 추천돼 있었다. 떠날 때부터

상품 특전에 포함된 씨클로를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선택 관광을 즐길 계획이었다.

여행 둘째 날 가이드는 A4 3장 분량의 ‘베트남 여행 안내문’을 나눠주었다. 첫 페이지는 베트남에 대한 개괄 정보, 2페이지는 선택 관광, 3페이지는 쇼핑 정보를 담고 있었다. 가이드는 “일정표에 의존을 하다 보면 일정 후 저녁 시간대에 호텔에서 항시 무료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문화 체험을 원했고 대부분 만족했다”며 선택 관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마음이 해외 여행을 더욱 윤택하게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강조돼 있었다.

안내문에 따르면 ▲전통 마사지 1시간 30분 30달러 ▲씨클로 체험 20달러 ▲하롱베이 보트 시간 연장(1시간) 및 호수동굴(20분) 관광 20달러 ▲다금바리 1인 30달러 ▲하롱베이 선상에서의 해산물 1인 20달러 등 모두 120달러였다.

가이드는 120달러를 100달러로 할인해주겠다고, 5개 옵션을 모두 선택할 것을 유도했다. 옵션을 꼼꼼히 살펴보면 여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롱베이 유람선에서 진행되는 3개 옵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나머지 2개도 선택하지 않으면 마사지 센터와 길거리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씨클로 타기는 상품 특전에 포함돼 있는데 왜 또 돈을 받느냐고 이야기하자 일정표에 있으면 빼주겠다고 대답했다. 또 상품 특전에 베트남 전통 해산식이 있는데 ‘하롱베이의 선상에서의 해산물 1인 20달러’는 왜 들어갔냐고 묻자 “베트남 전통 선상 해산식은 현지 수상촌 어민들이 먹는 형편없는 식사”라고 대답했다. 왜 그런 식사가 상품 특전에 있냐고 묻자 “선택 관광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다음날 가이드는 하롱베이 유람선에서 테이블을 돌며 1인당 80달러를 거뒀다. 사람들은 모처럼 떠난 해외여행에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이후 패키지 여행의 현실을 깨닫고, 선택 관광을 포함하지 않는 여행 상품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최근 패키지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마식 깃가시 옵션 투어도 수시를 밋수는 여행업계의 구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1등 여행사를 표방하는 하나투어, 너마저.....

여행 정보

국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도 하노이

인구 8500만 명(2006년 말 기준)

해안선 3451km

종교 불교(80%),가톨릭(9%), 까오다이교

시차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다.

전압 220V/50Hz

기후 건기는 11~이듬해 4월이고, 우기는 5~10월이다. 4~6월 하노이의 최고 기온은 28.9~32.8℃다.

언어 베트남어를 공식어로 사용한다. 일반 시민들은 영어를 못하지만 호텔이나 택시, 상점에서는 대부분 영어가 통용됨. 일부 상점에는 간단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도 있다.

비자 15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베트남 여행은 여권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 베트남은 다른 나라보다도 엄격해 여권이 찢어지거나 사진이 떨어지는 등 훼손된 여권을 소지한 경우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입국 시 기재한 출입국 카드 부분은 출국 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쇼핑 베트남은 수공예품, 전통 의복인 아오자이와 실크를 비롯한 독특한 민속상품들이 많다. 특히 베트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생산국으로 커피 향이 좋고 부드럽다. 여성은 아오자이를 기념품으로 사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된다.

단 베트남 물가가 싸다고 현지인들이 달라는 대로 쇼핑을 했다가는 바가지 쓰기 십상이다. 베트남 화폐 단위는 동(Dong)이고, 미화 1달러가 약 1만5000동이다. 관광지에서는 달러가 통용된다.

★ 주의 사항

- 베트남은 석회암 지형이 대부분이므로 수질이 나쁘다. 반드시 생수를 사 먹는 게 좋다.
- 바가지 요금은 베트남을 찾는 여행객들을 올리는 주범이다. 최근 호텔 주변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호객 행위에 속아서 노래방을 방문하고 바가지를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 교통이 무질서하며, 특히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 top](#)